

기억의 기념비 <광복 60년, 사진 60년 : 시대와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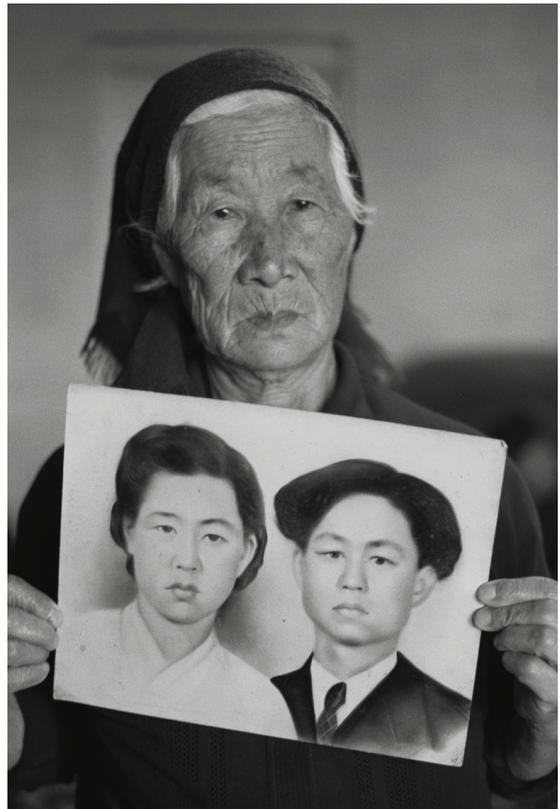
박영택 | 미술평론, 경기대 교수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열린 <광복 60년, 사진 60년 : 시대와 사람들>은 광복 60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당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반추해 보고자 하는 전시였다. 이름 없고 가난했던 이들의 삶의 현장과 생의 에피소드는 당대에 대한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Independence 60 years

올 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다. 어느덧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북 원산이 고향이신 아버지는 어린 시절 내게 틈만 나면 자신이 19살 때 혼자 '뺨스' 바람으로 넘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살아온 자신의 생애와 여정을 반복하셨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일본어로 교육을 받고 해방이 된 후에는 월남을 한 그런 아버지 자신에 비해 현재의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편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인지를 환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으셨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은 늘 내 자신을 형편없이 주눅들게 했다) 너무 아픈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된 그 깊고 넓은 '트라우마'는 한편으로 늘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삼 돌이켜 보면 아버지는 심한 고생을 하셨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깊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홀로 월남하셔서 갖은 고생을 하다 아버지는 이제 늙고 병들어 한없이 작은 분이 되셨다. 주름이 너무 깊고 동공은 폭 파여서 자신의 늙음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가끔씩 나는 아버지의 육체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그 모든 상처들을 한꺼번에 만난다.



박하선 <사할린-그 섬에 남겨진 사람들> 2004

오른쪽 페이지
박옥수 <현충일의 국립국군묘지> 1969





위 · 김한용 <강나루 나룻터> 서울 1947~9
아래 왼쪽 · 현일영 <해방의 순간을 기뻐하는 사람들> 1945
오른쪽 · 김용일 <이산가족찾기> 서울 여의도 1983

오른쪽 페이지
임응식 <국군입성-서울> 1950

동송동 문예진흥원 마로니에미술관에서 열렸던 <광복 60년, 사진 60년 : 시대와 사람들전>(4. 12~5. 8)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지난 생애를 다시 한번 반추시키는 한편 유년의 기억 또한 강렬하게 부감시킨 전시였다. 광복 60년 동안의 궤적을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추억시키는 것이다. 나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스쳤으며 내 어린 시절을 희미하게 건져 올렸다.

사진, 기억과 역사를 추억화하다

아득한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사진들을 문득 조우할 때 망각되었던, 잠시 망실되었던 기억들이 절실하게 살아난다. 한 장의 사진은 추억과 역사를 환생시키는 기이한 매개물이다. 기억은 얇고 납작한 사진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기억이 희미할 때, 추억이 간절할 때 사람들은 사진을 찾는다. 사진을 본다는 것은 불가분 '향수'와 관련되어 있다. 약간은 쓸쓸하고 비애스럽기도 하고 더러는 대견하고, 턱없이 우울해지는가 하면 까닭 모를 우울이 모래처럼 씹히기도 한다.

지난 시간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부동으로 얼어버린 사진은 자기 생의 명백한 증좌들이다. 어쩌면 그것은 약력처럼, 전과이력처럼 놓여 있다. 지난 삶의 자취들이 돌이켜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잊혀지기 어렵다는 것을 사진은 일러준다. 사진 속에 하나의 장면으로 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진을 징검다리 삼아 마냥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흐릿한 사진들이 새삼 추억을 호명하고 탈색된 이미지들을 안쓰럽게 부감시키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다.

사진의 등장에 따라 인간은 비로소 기억과 역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각자의 추억뿐만 아니라 집단의 추억과 기억 역시 두툼한 목록으로 봉인되었고 학습되었다. 그러니까 기억과 추억의 학습화는 사진으로 인해 진정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의 발명 이후로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이 사진으로 담겨지고 추억화될 것을 예상하고 기억의 기념화를 시도했다. 그러해서 기쁘고 좋은 날, 의미 있는 날 사진을 찍는다. 또한 곧바로 소실될 현재를 낱알이, 빠짐없이 사진으로 기억하고자 여념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급박한 사회변동과 근대화로 인해 과거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망실된 상황에서는 빛 바랜 사진 하나가 그 부재를 겨우 메워줄 뿐이다. 사진조차 없었다면 과거는 영영 무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가슴에 기억과 추억을 저장하기보다는 사진에게 그 임무를 위탁해버린 꼴이다. 아마도 인간은 덧없고 유한한 인생의 흐름과 자신의 불안정한 기억, 그리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추억의 합리화에 대한 두려움을 사진으로 밀봉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진은 개인에게는 자기 생의 역사이고 생의 증거목록이며 기억의 응고로 자리하면서 시간에 저항하고자 했다.

사진이 짜내는 한국 역사의 그늘

언제부턴가 내게 역사는 문장이기 이전에 한 장의 사진 안에 온전히 서식하고 있다. 이전에는 그림과 조각 등이 그 역할을 했겠지만 사진에 비해 신빙성과 인증의 힘은 무력했다. 지난 시간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사진 속에서 재생되고 반복된다. 사진이 이 땅에 들어온 이래 사진은 이곳의 이모저모를 촬영했고 기록했다.

식민지시대 이방인들의 눈에 의해 기록된 조선의 풍물과 사람들의 모습이 그 한 예다. 이후 한국인의 눈으로 현실이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해방 이후가 본격적인 다큐멘터리사진이 가능했던 시기일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창기 사진가들은 자기 당대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우리에게 그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공유하게 해주었다. 비록 그 수가 적더라도 그 사진들은 이내 우리들의 추억이 되었고 역사의 증거로 보존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급박한 사회변동과 급속한 근대화로 인해 과거의 흔적들이 순식간에 망실된 상황에서는 오로지 한 장의 빛 바랜 사진 하나가 그 부재와 삭막한 공복감을 겨우 메워줄 뿐이다. 사진조차 없었다면 우리에게 과거는 영영 무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지난 시간의 자취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히 하거나 기록과 보관에 대해 무심하다는 것은 추억을 없애고 역사를 지워내는 일이다. 과거가 부정되고, 은폐되고 오로지 현재만이 있는 자들은 일종의 기억상실증 환자와 다르다.

사진은 한 개인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단편일지라도 그 편린들이 모여 촘촘하게 역사의 그물을 짠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사진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추억, 기억,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 역시 집단적인 추억을 형성한다. 역사가 상상된 공동체의 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진 역시 그러한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빛 바랜 흑백사진 속에 부감된 상처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현실풍경을 기록한 <광복 60년, 사진 60년 : 시대와 사람들>에 출판된 다 큐멘터리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잊혀졌던, 알지 못했던 혹은 분명 보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현실과 현실계의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특히 내 자신이 이승 푸레 기억하고 있는 시간대부터 현재까지는 더욱 강렬한 추억으로 만나고 있다. 광복 이후 60년 동안의 한국의 지난 기억들을 사진을 통해 반추해 보고자 하는 이 전시는 그 시간대를 살아온 한국인 초상의 변천 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억의 낡은 필름을 다시 돌려 멈춰 놓는다.

이 전시는 1945년에서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과 반영에 연관된 사진들이 모여 쓴 역사사진전이기도 하고 당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 얼굴의 역사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의 경우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시간의 궤적은 과란만장이란 말로밖에는 표현하기 어렵다. 모든 일상과 역사가 아찔한 생의 현장에 다름 아니지만 특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1945년에서 지금까지의 삶의 변화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하다. 이 전시는 그 드라마틱한 삶의 현장을 살아온 한국인의 얼굴에 초점을 두었다. "광복 60년 동안 한국의 역사 및 시대의 흐름과 변천을 인물사진으로 살피고자 한 것"이다.

사진은 무엇보다도 그 기록성으로 인해 동일민족구성원들에게 지난 시간의 궤적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인식시키는 한편 공동체의식을 불러들인다. 우리는 이 사진들을 통해 광복 60년 동안의 이곳에서의 삶의 궤적과 이 땅에서 그 시간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게 된다. 내 개인의 기억이 그들의 기억에 포개어지고 내 실존이 그들의 육체에 기생한다.

1945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이 긴 역사적 도정의 기록들은 한국인들이 그간 살아온 삶의 내력이자 기억들이다. 빛 바랜 흑백사진 속에 부감된 상처들이다. 이 사진을 시작으로 우리는 마치 역사를 다시 거슬러 가 보듯이 지난 사람들의 모습들을 만난다.

해방 이후의 삶의 정경들, 역사적 순간들이 흑백사진 속에 고스란히 절여져 있다. 소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이 사진은 한 개인이 시도한 자기 생애의 기억이자 시대와 현장에 대한 기록이었다. 마치 한 집안의 내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앨범의 갈피를 헤집듯이 이 사진들을 그렇게 뒤적이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 내 유년기가 고스란히 부감된다. 사진을 통해 그 과거의 시간으로 줄달음질치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회복 · 창조된 과거

추억의 재현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나에 따라 얼마든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추억의 세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크든 작든 '디테일'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디테일이 풍부한 추억을 되살려내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디테일일지라도 일단 재현되면, 그것은 물리적인 크기나 위치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구체적이고 사소한 소품들은 매우 즉각적으로 추억을



조문호 <전농동 588> 1987

되새김질하게 만든다. 따라서 구체화되어 제시된 기억들은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더라도, 곧 추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강력한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개물을 통해 사람들은 각자의 추억으로 달려가게 된다.

빛 바랜 한 장의 사진, 언제였는지 모를 시간 속 현실로 제시된 추억의 장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게 있어서는 텅 빈 기표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비어 있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속을 계속해서 채워 넣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만들며 그 순간 각자의 기억들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안으로 침투하게 한다. 어떤 사진을 본다는 것은 그저 누군가의 재구성된 기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재생하는 행위와 겹쳐지는 것이다.

사진의 이미지는 보는 이들의 기억에 이미 박혀 있는 감상들에 강력하게 달라붙는다. 사진이 불러일으키는 추억이란 일정 정도의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공감을 일으키는 순간에는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사실 추억이란 증명할 수 있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을 내포한 과거

의 구체적 체험이다. 추억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한하고 충만한 현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과거로서, 말하자면 현재화된 과거, 과거의 현재화인 것이다. 이렇게 추억을 통해서 회복된 과거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과거가 아니라 새롭게 재구성되고 창조된 과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비로소 이 사진가들의 사진을 통해 그 시대를 더욱 생생히 기억한다. 대부분 이름 없고 가난했던 이들의 삶의 현장과 생의 에피소드는 향수와 복고를 자극하면서 서글픔으로 응고된다.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시대를 보면 마냥 슬프다. 그런 시절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눈물겹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굶고 배고팠던 시절, 그 현실 속에서도 약삭스레 생을 이끌어온 이름 없는 서민들의 초상이 견장처럼 빛난다.

이 전시는 광복(해방) 60년 동안의 한국 현대사의 질곡과 파란만장한 사연들을 당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새삼 반추시킨다. 어쩌면 역사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 비근한 일상을 영위하며 성실히 살다간, 혹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개인의 삶의 편력에 의해 저장되어 있었음을 문득 깨닫게 해주었다. 🌈